

# 동정공파 통합파보 발간 고유제

11월 25일 안동시 안막동 호소곡 단소에서

안동권씨 시조후 10세 15대파 중 효장 동정공戶長同正公 체달棟達를 파조고派祖考로 하는 동정공파가 파보를 시장한 이래 최초로 동서 양파가 각기 분보를, 또는 동파 중에서 다시 동서로 갈린 분보를 발간한 바도 있던 바를 일목요연하게 거편의 단권으로 통합하여 발간하고, 그 준성을 파조고 동정공께 고유하는 행사를 11월 25일 안동시 안막동 호소곡의 동정공 단소에서 봉행하였다. 권오수·권五秀·동정공 종회장이 편찬위원회의 도유사로서 직헌酌獻을 하고, 파종회의 권역철權赫轍 부회장이 고유문을 봉독하였다. 방손유사로서 권주연·권숙衍·안동권씨·종회장협의회장과 권오익·권五翼·대종회·안동사무국장이 내참하여 집전하고 서울에서 편찬 발행자 권오훈·권五薰·종보사 대표와 권승환·권升煥 이사가 참석하였다. 그 고유문에 주문主义으로 이번 통합보 발간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유(維)**  
단군기원사천삼백오십오년 세차이천  
이십이년임인십일월신사삭초이일임오  
이십오대손(檀君紀元四千三百五十五年  
歲次二千二十二年壬寅十一月辛巳朔初  
二日壬午二十五代孫)  
본종회도유사오수감소고우  
(本宗會都有司五秀敢昭于)  
현이십오대조고호장동정공부군지단  
복이본종역대숙원동서양파합보득이신  
편준성 실뢰(顯二十五代祖考戶長同正  
公府君之壇伏以本宗歷代宿願東西兩派  
合譜得以新編竣成實賴)



완간된 동정공파 통합보의 호화장정 실물

**존령조우 근이주과용신건고근고**  
(尊靈照祐 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

과거 동정공종중의 동서 양파는 통합보를 집성하고자 누차 합모한 바 있었으나 그때마다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성사가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양파가 각기 2, 3권씩 분보를 간행하여 양보가 5, 6권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고도화한 인쇄 제책술의 발달과 더불어 안동권씨가 한글판 전산 인터넷 대동보를 먼저 창시했기 때문에 거편 단권으로의 압축발간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한국의 구태의연한 전통 족보는 한자 문맹의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부닥쳐 회생 불능의 사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대 환경과 족보 사멸의 긴박한 시기에 동정공파의 신편 한글판 전산통합파보는 여러 난관을 참신한 돌파력으로 뚫고 나와 꽤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명하전名下錢이라 하는 전래의 수단비收集費도 거두지 않고 마른 나무에 기름내기 식으로 자비를 들여가며 필마단기로 도처를 누비고 다니며 수단요령을 숙지시키고 각개 수단을 수합해 들인 파보편찬위원회 단신 유사 권영화씨의 독지가 이 지역을 이룬 바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통합파보 발간의 취지와 의의, 경과 및 효과와 전망 등에 관한 술회가 변수弁首의 서와 발문에 잘 요약되어 있다.

권오수 도유사는 두서頭序에서 '대저 족보가 있고부터 종법과 종중이 생기고 종법이 있고서야 선영의 세사歲事와 세전世傳의 가범이 이루어졌으니 족보야말로 송조돈종의 기본이요 종중존재의 근본이다. 족보가 있지 아니하고는 종중의 존재이유와 목적이 없고 실제로는 없어지는데도 하늘과 말세의 풍조가 족보의 소멸시대를 맞고 있다. 천하가 첨단과학문명의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기술과 디자인화상의 현실화 구현이라 할 메타버스의 세상이 되어 부신 눈의 망막이 위태로울 지경인데 구세대 미개화의 유물인 족보는 해서 무슨 소용이냐는 풍조가 해일과 같아서이다'라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다.

지금은 나이든 사람도 족보에 대한 필요성과 개념이 희박해지고 차세대는 족보의 문화사적 목적과 존재의미 및 이유에 대한 인식 내지 인지능력조차 잃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권씨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성씨문중에서 족보가 사라지고 수많은 문중공동체가 소멸할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 우리 국가사회는 척관법 호주제 호적법에 이어 연령산법 등을 폐지하여 한국



동정공파조 단소에서 파보발간의 고유행사가 봉행되고 있다.

사업협조의 약조를 받아내며 사비를 들여 차자를 몰고 문중 세거지를 동분서주 발설 심방跋涉尋訪하며 불과 1년여에 전수종원의 거반에 가까운 인구의 수단을 받아들이고, 이를 종보사의 사전협력으로 편집조판하여 3,4차 수교離校까지 마치면서 인쇄제책의 상재上梓에 이르게 하였다.

다음은 역시 권수에 게재한 권영화 사무국장의 발문 내용 부분발췌이다.

불초가 경사京師의 우거에서 노후를 위해 귀향하면서 우리 소문중만의 수단을 모아 소제보를 하나 만들어 보려다 뜻밖에 원오수 도유사의 부름을 받고 문득 달려와 일을 벌이다 보니 그만 당랑거철蠭蟬拒轍의 불감당이 되었다. 종중에 재정이 부족하니 어디 달리 지원을 기대할 데도 없고 코로나 만연의 시대 중에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는 독지인사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도처에 산거하는 여러 후손 족친의 수보修譜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예상을 웃돌았다. 솔직히 종중유사와 집행부의 나태와 무기력에 비교가 안되었다. 그러나 일에 몰입하다 보니 주변에서 누구 하나 거들 용의를 보이는 분도 없거나 또한 일이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본인 스스로 몰입해 들어와 벌여놓고 감당을 못하게 된 셈이라 하소연 할 자리도 없었다. 최악의 경우 수단을 거둬들이고 다닌 불초가 혼자 책임을 져, 조판입력과 교열을 완료한 내용을 종보사의 인터넷판이 업데이트하여 올리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다 사적부담으로 소리 없이 결말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종보사에서 그것이 불가능이라 하였

다. 개인이나 지파종중이나 족보가 작성되어 책자로 발간되지 않고 인터넷판에만 등재가 되려면 1인당 등재비 1만 원씩이 드니 총액 1억원이 상회하기 때문이었다. 불초의 낙과 더불어 기수남 수단의 조판입력을 선행해온 종보사도 진퇴의 난관에 처했다. 피차간 암중모색 끝에 속수무책인 불초에게 종보사에서 먼저 과격의 제언을 해주었다. 전액의 제작비와 부대비 일체를 종보사에서 부담하여 출판을 해주고, 이를 불초가 책임지고 판촉 등을 전담, 책자를 보급하여 제작비 등을 사후 결제하는 방식의 계약을, 동정공종중이나 아니면 종중도 유사의 개인적 위임을 받은 불초 본인이 체결해 달라는 암이었다. 이에 본인은 이제안을 도유사께 품의하여 승낙을 받고 즉시 종보사와 구두약정을 맺어 돌파구를 열었다.

덧붙일 것은, 차후로 종중에 족보수단을 상담하고 작성해 주며 독려하기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게 시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태어나면 국가에 출생을 신고하고 주민으로 등록을 해야 한국의 국민이 된다. 그에 따르면 우리 안동권씨도 태어나 족보에 등재되어야 권리, 즉 권씨인이 된다. 불초가 서울 살이에서 귀향하여 안동에 내려와 문로의 당부도 있고 하여 기준 족보를 여러 모로 살펴보던 중 근자에 새롭게 발간된 한글전 산대동보를 접하면서 본인에게 가까운 집안의 등재형태부터 점검해보니, 그 정보가 너무 소략미비하고 누락되고 오류탈락된 부분이 부지기수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은 그래서 당내친의 집안 족보만 바로잡는 작업을 하던 중에 뜻밖의 부름을 받아 전체 파보의 수단과 편수작업을 돋는, 불초로서는 처음 해보는 큰일을 맡아 2년여 동안 미력을 다하게 되었다. 이 혁신족보의 주요한 착안점은 여자의 성명과 주기를 남자와 똑같이 등재하는 것이 우선 획기적이다. 족보에 사위만 오르고 딸은 이름도 주기도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도 머나먼리 넘어선 윤시사상이 아닐 수 없다. 며느리도 성씨와 친부 이름 외에 본명과 자세한 주기가 없다는 것도 우매무지의 소치이다. 족보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 나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디에 살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으며 영구히 존재하?????? 유래는 어디에 있는지 정도가 명기되어야 온전한 인격체인 한 자연인의 일대기가 정리되는 것이다.

〈보도자료 및 사진 동정공파종중 제공〉  
권오훈 문현편찬위원장

인류사에는 정사와 야사와 가족사가 있습니다  
가족사는 족보이고 한국은 족보의 첨단선진국입니다  
한글과 인터넷판을 겸한

## 안동권씨 동정공파보가 나왔습니다

동정공파는 안동권씨 10세 15대파 중 제5파 휘 체달을 파조로  
전국과 해외에 산거하는 2만8천여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동권씨동정공파보는 역대로

세칭 동파와 서파로 양자가 갈라져 발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양자가 단일화로 통합되어, 각기 여러 권으로 나오던 것이  
거편의 초호화판 단일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최첨단출판인쇄제책기술 4x6배판 최고급 용지자재 사용  
부록합책 1,626면 값 150,000원

### 동정공파보구입신청

<36709> 경북 안동시 육사로 333 펠리시아 101동 303호 권영화 010-7288-2510  
e-mail 개미골 kwongemigol@hanmail.net 동정공파  
페 https://cafe.daum.net/andongkwondji  
서울구입처 안동권씨종보사 02) 723-4480, 010-6491-3329

안동권씨동정공파보편찬위원장 종회장 권오수

## 추밀공파 창화공계 요동절도사(權壽永, 25世) 추향제 봉행

지난 3일 음력 10월 10일, 시향(時享) 지내는 날이다. 동생뻘 후배 전화를 받아보니 고향인 경기도 화성에서 많은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향을 지냈다며, 친구인 이장 그리고 안동권씨 종보 편집국장인 권행완 박사와도 통화를 하게 되었다.

시향은 사시제(四時祭) 시사(時祀) 절사(節祀) 묘제(墓祭)라고 하는데, 크게 사시제와 묘제로 나눌 수 있다. 사시제는 춘하추동의 중월(仲月)인 음력 2·5·8·11월의 길일을 택해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제사를 반드시 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시제는 고려 공양왕 2년(1390) 8월에 '사대부가제의(士大夫家祭儀)'를 제정하여 그 절차와 내용을 정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국조오례(國朝五禮儀)'에 규정하였는데 대체로 주자(朱子) '가례'의식을 본떴다.

묘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며, 오늘날 음력 3·10월 중에 날을 택하여 5대조 이상의 조상을 해마다 한 번 그 묘소에서 반드시 드는 제사로서, 고례(古禮)에는 없는 제사인데 주자가 시속에 따라 만든 것이다.

내 고향마을은 삼동네라 하여 세 부락으로 이루어지고 모두 50호쯤 되었는데, 대여섯 집 정도만 제외하고는 모두 권씨 집성부락이었다. 입향조는 임란 때 선무원 종공신(宣武原從功臣)으로, 종2품직 동지 중주부사를 지내셨고 사후 요동절도사(遼東節度使)에 추증되신 분(수영壽永, 추밀공파 25세)이다.

평소 요동절도사 추증과 관련하여, 조선에서 어떻게 요동절도사를 추증했는지가 궁금하였다. 몇 해 전에 군사편찬연구소 김경록 박사가 부산에 와 점심을 같이 하였는데, 한중관계사 전공기이기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니 역시 전문가답게 명쾌한 대답을 해주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



추향제를 지내고 나서 기념촬영



권선흥 부산외국어대학교수, 대신소라고 부르는 입향조 묘소를 배경으로 입대 직전인 78년 3월 고향에서 찍은 사진

다. 즉 임란 때 원병으로 조선에 와서 함께 전쟁을 했던 명나라 군대가 전쟁이 끝나고 귀국하여 전공이 있는 조선인들을 조정에 상신하였고 황제가 이들을 사후에 요동절도사로 추증하였으며, 당시에는 커다란 영예로 여겼다고 설명해주었다.

족보를 보면, 입향조가 내게는 13대조(壽永) 좀더 거슬러 20대조가 복천군(福川君)으로 문과 급제 후 관찰사와 병조참판을 지냈는데, 장남과 4남도 문과에 급제

하였다. 그러나 성종 원년 구성군(龜城君)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장남과 4남이 처형당하고, 주부(主簿)였던 19대조는 전라도로 유배되었다. 후일 해배되고 압록강 국경수비대에 배치되었고, 그후 후손들 역시 변방을 지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연유로 입향조가 임란 때 나름대로 공을 세우게 되었고, 아들인 12대조(仁祿)는 호란 때 통역을 담당하였는데 실록에도 자주 등장한다.

시조부터 안동에서 살다가, 28대조 때에 수도 개경에 올라가 살았고 다시 압록강변 사풍 속에서 지내다가, 13대조에 이르러 지금의 고향에 터를 잡았다. 아마도 왜란이 인구 유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터. 가까이에 나주김씨 가문이 사는데, 나주로 내려가다가 그대로 머물러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렸을 적에 출서서 시향 음식 받았던 추억이 떠오르고, 캐지 생활하면서부터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스럽기도 하다.

권선흥 부산외국어대학교수 명예교수